

2026년 ANC 말씀 세미나 가을학기
Zoom 을 통한 제자(목양/양육) 사역
김정복 목사 말씀 세미나

요한복음 강해 (3) 9/ 1(화)

8/18(화)-9/29(화) (7주간) 오후 7:30-9:00
(2026. 8/18. 25. 9/ 1. 8. 15. 22. 29.)

신청 및 문의 :

장대수 팀장(562-896-5701)/정훈 목사(434-229-0679)

요한복음의 장 별 주제 내용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
예수 그리스도

- 1 장 : 말씀(Logos)/하나님과 예수님
- 2 장 : 혼례와 포도주/성전과 예수님
- 3 장 : 거듭남/니고데모와 예수님
- 4 장 : 갈증/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 5 장 : 치유/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
- 6 장 : 참된양식/오병이어와 예수님
- 7 장 : 예수님의 때/생수의 강(성령)
- 8 장 : 율법/죄와 예수님
- 9 장 : 눈먼 자/안식일과 예수님
- 10 장 : 선한 목자/양의 문과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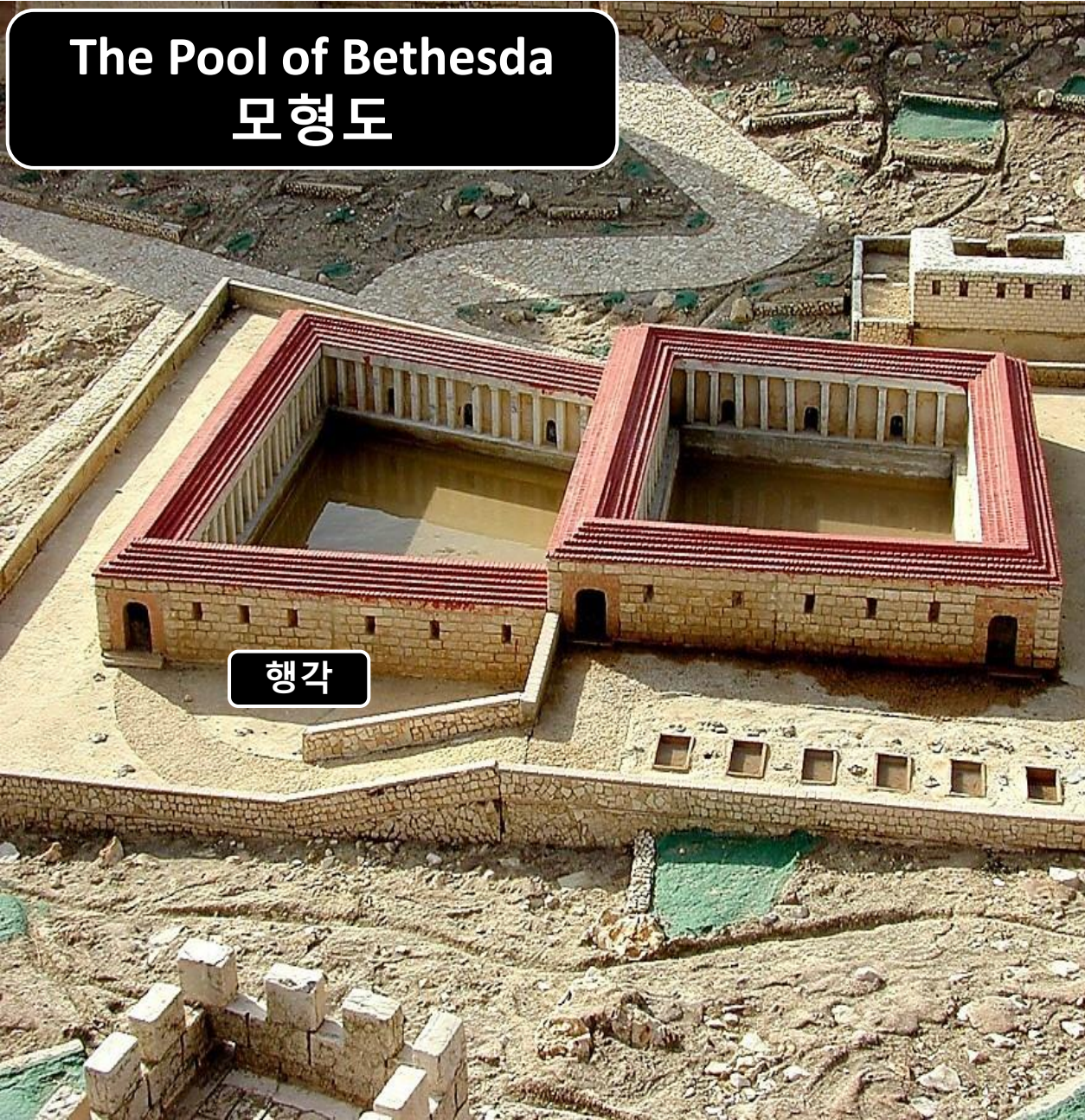
- 11 장 :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
- 12 장 : 참된 헌신과 예수님
- 13 장 : 참된 스승(멘토)과 예수님
- 14 장 :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 15 장 : 포도나무와 가지와 예수님
- 16 장 :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님
- 17 장 : 예수님의 기도
- 18 장 : 불법 재판과 예수님
- 19 장 :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 20 장 : 예수님의 부활과 가르치심
- 21 장 : 예수님의 현현과 가르치심

베데스다 연못과 치유와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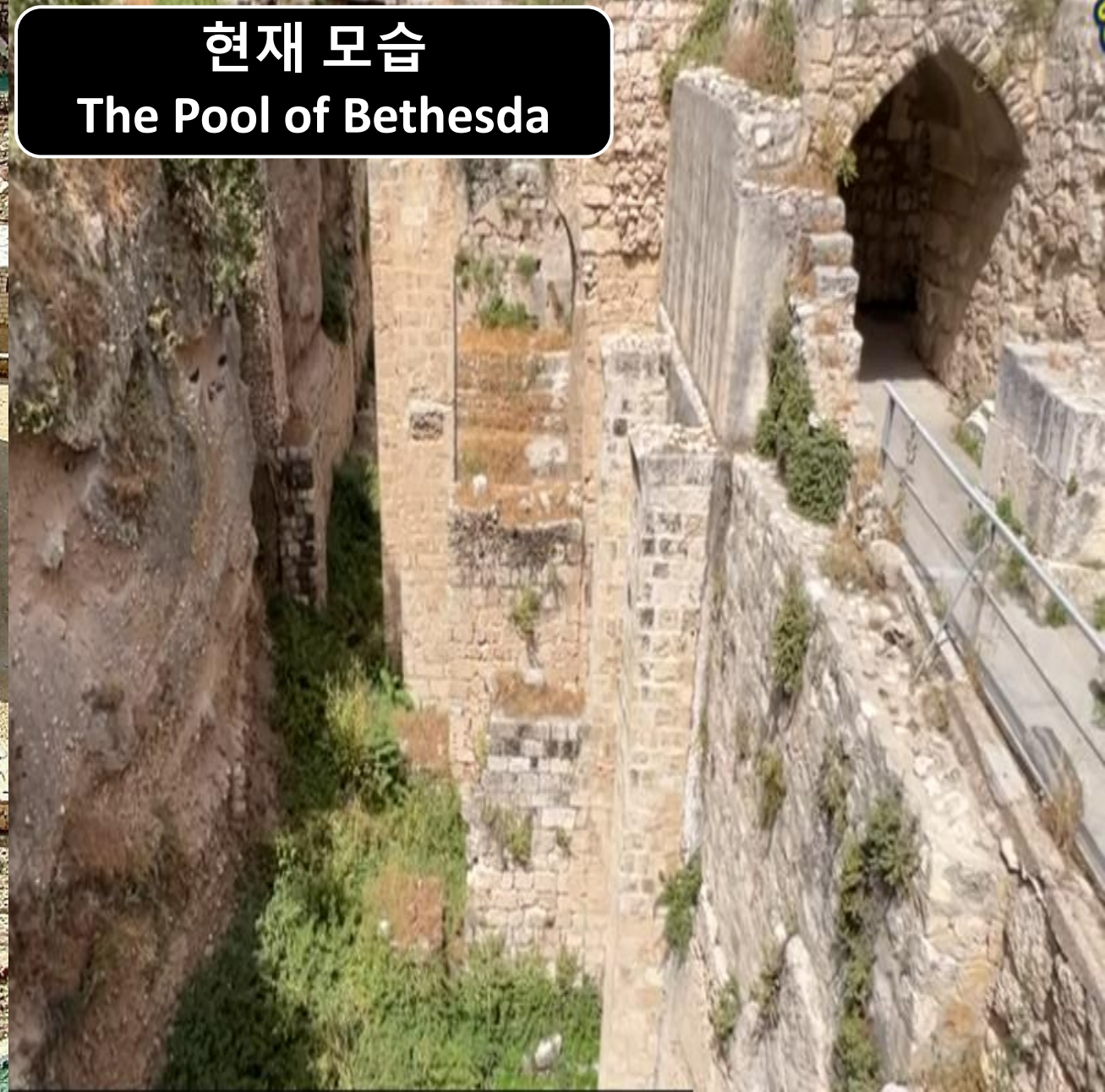
안식일과 예수님 (요5:1-19)

베데스다 못과 예수님

The Pool of Bethesda
모형도



현재 모습
The Pool of Bethesda



베데스다 못과 행각

- 1) 베데스다 못과 행각(行閣/여인숙)은 어떤 곳인가?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의 양문(羊門) 곁에 있는 못으로
자비(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며,
못(Pool)의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미신이 있어,
곁에 있는 행각에 많은 병자들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치유를 바라고 모여 있던 장소이다.
- 2) 베데스다 못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다는 전설/ 미신을 뜻하고,
행각은 이 전설을 믿고 모여든 불치병 자들
곧 행각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사람들을 의미 한다.

예수님의 임재/ 사랑(Agape/Hessed)

- 3)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이 행각에 찾아 오신다.
그리고 병이 38년된 환자를 찾아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으신다.
- 4) 병자는 예수님이 눈 앞에 계신데도 알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만 한다/ 이 세상 사람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38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 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베데스다 못의 전설과 그 전설을 믿고 기다리는
환자들의 삶에서 잘못된 믿음/신앙을 본다.

행각에 누워 있는 자들 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같은 환자들이다.
38년된 환자는 이 병을 38년 이나 고치지 못하고
병고에 괴로워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38년된 환자의 병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함께 갖고 있는 자들 이다.
모든 사람은 병자(病者)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롬3:23)

사람들은 모두 죄의 병, 율법을 범하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120세 안에 죽게 되어 있다(창6:3)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창3:6)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6:23)

예수님은 먼저 찾아 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다.

첫째, 예수님은 먼저 찾아 오셨다

둘째, 우리의 형편을 살펴 보시고 아신다.

셋째, 그리고 말씀하신다. /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자세히 보셨고
38년 동안 낫기를 원하고 있음을 아셨다면 고쳐 주시지 않고,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짐승에게 음식을 주거나
거지에게 금전을 줄 때에는 묻지 않고 준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때에는 먼저 묻고 원하는 것을 준다.
식당에서도 먼저 메뉴를 주고 원하는 음식을 가져다 준다.
이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우함이다.
예수님은 38년된 환자를 이와같이 예우와 사랑으로 대하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 영안이 맹인인 38년된 환자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 한다/ 잘못된 기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Agape/Hessed)이고 은혜이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2:8-9)

법(法)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서 38년된 환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
나를 낫게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이는 예수라 하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라.

유대인의 안식일(샤밧)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한다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러라.

유대인의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져서 별이 3개 보일 때까지를

안식일/샤밧 이라고 하며, 이 날은 노동을 철저히 금하고,

회당 예배, 가족과의 식사, 휴식과 기도에 집중한다.

불 피우기, 음식 만들기, 운전, 전자기기 사용 등 39가지 노동을 금한다.

성경에 나오는 참된 안식일은 주일이다

성경에 나오는 참된 안식일은 언제 인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창2:2-3)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12:8, 눅6:5)

성경적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다.

창조 6일 동안의 빛은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창1:3)이므로

태양계(창1:14-19)에 의한 월화수목금토일의 요일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이며,

하루의 길어도 태양계에 의한 24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곱 째 날에 안식하셨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 후 첫 날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 새벽이고,

이 날이 주님의 날(LORD'S day), 주일이고,

성경에 나오는 참된 안식일이다.

주일은 어떻게 성수하여야 하나?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복 받는 날이다.

지성소의 복,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날

둘째,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날이다(창2:2-3)

지성소의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

주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요4:24)

셋째,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날이다.

지성소의 안식/하나님의 안식, 영혼의 안식, 참된 평안(요14:2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나의 모든 병(病)이 고쳐지는 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모든 죄의 병

사망(死亡)에 이르는 죄(罪)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나님께 대한 계명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너는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창2:2-3/ 마12:8)

사람에 대한 계명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요일5:16-17/히6:4-6)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요일3:9)

구약시대 또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과 안식일을 지켰으나(행위)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친다(믿음)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세의 십계명중 네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이다.

십계명 중에서 1-4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10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 이다.

1-10 계명은 모두 같은 율법이지만,

5-10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으나,

1-4 계명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6:4-6)

하나님의 씨(Seed)가 있는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그의 안에 갖고 있는 자는 1-4 계명을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요일3:9)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특히 주일/안식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사는데에 더욱 힘써야 한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는 주님의 날/주일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딤후4:5)

참된 양식/ 오병이어와 예수님

(요6:5-15)

육체의 양식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다 (요6:1-4)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자기에게 몰려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요6:5)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마음을 알아 보신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빵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 데나리온의 빵도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당시 1데나리온은 1일 품삤이다.

2026. 7.26. 현재 :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32.38달러 × 8시간 = 약 259달러 × 200 데나리온 = \$51,800.00
(한화로 약 77,700,000원)

오병이어와 5000명의 남자들

이때에 제자 안드레가
여기 보리빵 다섯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남자만 약 5,000명쯤 되었다 (여자와 어린이 제외)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열 두 광주리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남자 어른만 약 5000명 이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합하면
그 수를 알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영혼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육신(Flesh) 안에 영(Spirit)과 혼(Soul)이 있다.

양식은 육신(Flesh)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영(Spirit)과 혼(Soul)을 위한 양식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양식은 어떤 것인가?

- 1) 그 양식은 네 가지 이고, 일용할 양식이다.
- 2) 일용할 양식은 간식(間食)이 아니고,
매일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밥/빵과 같은 주식(主食)이다.

양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양식은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참된 양식 이다.

1) 육신의 양식/ 정결한 음식

매일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양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건강에 유익한 정결한 음식이다

우상의 더러운 것(영적)/ 음행(육적)/ 목매어 죽인 것(마른 피)/ 피를 멀리하라(행15:19-20/29)

2) 영혼의 양식/ 말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마4:4) 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딤후4:13),
귀로 말씀을 듣고(롬10:17), 입으로 말씀을 먹고 전하는(겔3:1-3)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이 아니고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전하라

첫째, 말씀을 읽어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4:13)

둘째, 말씀을 들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셋째, "말씀을 먹고, 전하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예수님의 양식

3) 예수님의 양식/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십자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복음)

(요4:34)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 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요1:12, 롬8:15-16),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참된 양식

4) 참된 양식/ 예수님

예수님께서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요6:55)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포도 나무와 가지 처럼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참된 양식

4) 참된 양식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요6:55)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포도 나무와 가지 처럼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참된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다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결코 주리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기도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통로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요6:14-15)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두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사 밤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마14:22-23)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요7:6)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예수님께서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요7:6)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뜻한다.

(1)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사역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한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속량사역,
사탄을 심판하는 사역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너희들의 때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가야하는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며,
사람은 시간대(Time Zone)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대(Forever Zone)에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4) 천하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모든 때와 기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5) 시간에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흐르는 크로노스 시간과
사람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이 관계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3:1-8)

초막절(草幕節)의 영적 의미

2) 또한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 인가?

(1)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 가게 할 때에,
광야에서의 삶에서 유래한 절기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2) 이 절기의 영적의미는, 애굽/바로/사탄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범죄한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장대에 달린 낚뱀/ 죽은 사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봄으로 다시 살아 났다(민21:8-9)
후손들이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절기를 지켰다.

초막절 끝날과 생수와 성령

(3) 예수님은 초막절 끝 날 곧 큰 날에 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7-39)

3) 예수님은 왜 초막절 끝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4) 말씀은 하나님 이고(요1:1),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요1:14)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는데 그 생수는 성령님이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같은 하나님이시다.

5)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이다.

(1)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엡1:3-5) : 사랑(Agape/Hessed)

(2)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고전1:18/요19:30) : 은혜(Grace)

(3) 성령님의 기도와 교통하심(롬8:26-28) : 능력(Power)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